

롯데카드 '눈독' 들이는 우리금융·하나금융·KT

MBK파트너스, 지분 매각 만지작 비은행 부문 주력 우리·하나 '군침' 사업 다각화 KT도 참전 가능성 커 희망가 3조...붙어난 몸값이 변수

카드업계 5위 롯데카드가 인수합병(M&A) 시장 매출로 나오면서 카드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인수 3년 만에 매각을 논의 중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2019년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 원에 매각했다. 현재 지분은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 자회사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 59.83%, 우리은행 20%, 롯데쇼핑이 20%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위권 카드사 도약 노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중소형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금융, 하나금융, KT 등이 꼽힌다. 롯데카드 인수를 통해 상위권 카드사로 도약할 수 있는 데다 수익 다변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 완전 민영화 원년을 맞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참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금융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 2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할 때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해 지분을 확보했다. 또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경영권 매각 시 우선적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우선점도권도 보장받았다.

우리은행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롯데카드 경영권을 확보하고,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인수합병(M&A) 시장 매출로 나온 가운데, 상위권 카드사 도약과 수익 다변화를 노리는 우리금융, 하나금융, KT 등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로구 소재 롯데카드 사옥. 사진제공 | 롯데카드

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하위권인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금융이 2023년까지 비은행 계열사 수익 이익 비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점도 참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가 시급한 만큼 카드사 M&A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비슷한 이유로 하나금융의 참전도 예상된다. 실제 하나카드는 2019년 롯데카드가 매출로 나왔을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에 참여한 바 있다. 은행에

서 분사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3년 전보다 롯데카드의 가격이 오른 만큼 인수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카드 및 하나카드가 롯데카드와 합병할 경우, 카드업계의 지각변동에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 21.2%, 삼성카드 18%, KB국민카드 16.9%, 현대카드 16.8%, 롯데카드 10.3%, 우리카드 9.2%, 하나카드 7.6% 등 순이다.

롯데카드가 우리카드와 합병 시 단번에 점유율 업계 2위로, 하나카드와 합병 시 점유율 3위로 뛰어오르게 되는 셈이다.

●관건은 매각 가격...희망가는 3조 원

BC카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KT도 북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BC카드의 최근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BC카드의 영업수익 80% 이상은 결제망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데, 기존 회원사들이 자체 망을 구축하면서다. 특히 수익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우리카드가 독자 결제망 구축 작업에 들어간 것이 뼈아프다.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절실해진 만큼 롯데카드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는 전망이다.

관건은 매각 가격이다. MBK파트너스의 매각 희망가는 약 3조 원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보유 지분 59.83%에 대입할 경우 약 1조8000억~2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3년 전보다 상승했다.

이는 롯데카드가 지난 3년간 수익성을 크게 개선해 몸값을 키웠기에 가능했다. 2019년 517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307억 원, 2021년 2414억 원으로 올랐다. 신규 브랜드 '로카(LOC A)'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고 모바일 앱 '디지로카'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단행한 것도 효과를 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롯데카드의 실적도 좋고 향후 호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인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매수자들 간 매각 가격을 놓고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공개 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함께 인수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권준학 NH농협은행장, 황재복 SPC그룹 대표, 서삼석 국회의원(왼쪽부터).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농협은행-SPC, 무안 양파 소비 촉진에 앞장

NH농협은행과 SPC그룹이 최근 파riba계프 강남서초점에서 '무안 양파빵'을 통한 우리 농가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무안 양파빵은 SPC그룹 파riba계프가 전남 무안군과 상생 협약을 맺고 출시한 상품이다. 해풍을 맞고 자라 식감이 아삭하고 향이 진한 무안 양파를 활용해 단짠(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NH농협은행은 이 제품을 구입해 주요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나눠주는 등 양파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양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향후 농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ES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 스타트업 지원 '디노랩' 참여 모집

우리금융이 30일까지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에 참여할 3기 기업을 모집한다. 핀테크, AI(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인증 등 금융서비스 및 기술 분야 중심 업체가 대상이다. 선발 업체에 우리금융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채용지원,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성수동 소재 공유 오피스인 디노랩 제1센터에 입주도 가능하다. 참여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금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회사 측은 "우리금융과 혁신 DNA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역량이 풍부한 기업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은행, 21일 '은퇴자산관리' 유튜브 방송

KB국민은행이 21일 오후 5시30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KB골드라이프 특목' 4월 세미나를 연다. 은퇴자산관리의 핵심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학습하는 정기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이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포인트 알아보기', '안정된 노후를 위한 나만의 연금투자 전략 설계하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세미나 중 라이브 채팅과 퀴즈 이벤트 등 참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 희망 고객은 12일까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앱 하나로 주식·비상장 주식·디지털 자산 정보 '한눈에'

두나무 앱 증권플러스 서비스 확대 디지털 자산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 PER 등 기업 주요 지표 일괄 제공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 앱 증권플러스가 11일 디지털 자산 종목 검색 및 실시간 시세 조회를 시작했다.

두나무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손잡은 것으로, 디지털 자산 종목과 실시간 시세 정보가 연동되면서 증권플러스 앱 하나로 국내외 주식은 물론 비상장 주식, 디지털 자산 정보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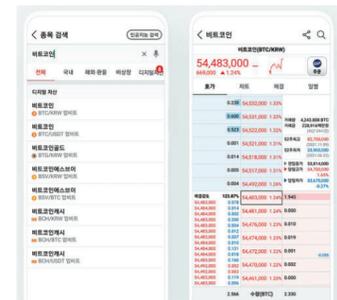
있다. 증권플러스 종목 검색 화면에서 디지털 자산의 이름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관련 정보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대상은 업비트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다.

종목 검색 화면에서 '비트코인' 또는 'BTC'를 입력할 경우, 업비트 원화(KRW)마켓과 테더(USDT)마켓의 현재가, 호가, 차트, 체결정보 등 실시간 시세 정보를 업비트에서와 동일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주식 종목 정보 페이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업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의 증감률, 업

종평균 주가수익 비율(PER), 출자 현황 등 주요 지표를 일괄 제공한다. 재무, 기업, 배당, 분석 등으로 탭이 나뉘어 있어 각각의 상세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종목 정보 영역마다 부채 비율 읽는 법, 좋은 현금흐름표 구분하는 법, 매출 구조에서 인사이트 얻는 법 등의 설명을 덧붙여 주식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두나무 측은 "주식, 비상장 주식, 디지털 자산 등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과 투자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돕고자 디지털 자산 종목 정보를 연동했다"며 "모



증권플러스 앱에서 확인 가능한 디지털 자산 종목과 실시간 시세. 사진제공 | 두나무

든 투자 자산 정보가 집약된 종합 플랫폼으로 증권플러스를 지속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오늘의 날씨 12일(화)

서울 30/70	인천 30/70	춘천 30/80
16 20	13 17	13 23
강릉 0/60	대전 20/20	전주 10/0
18 26	14 25	16 26
광주 0/0	대구 10/0	부산 20/0
17 27	16 30	16 22
창원 2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5 24	15 22	날씨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0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2일(화) 음력: 3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매사가 풍선처럼 결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외로워지고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취침 시 동북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혼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점차 나아지겠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입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위치를 바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해야 한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해야 한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가지도 많은 상속의 운도 있다.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피라.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이 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